

‘공명선거 문화 정착’ 당부

중앙선거위 ‘10·28 중회의원 선거 담화문’ 발표

제15대 중앙중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스님·사진)가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당부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교신문> 10월13일자에 ‘제15대 중앙중회의원 선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위원장 심경스님 명의의 담화문에서 “종도의 여망에 맞춰 선거문화가 한층 성숙하고 공명무사한 선거를 발원한



종흥과 발전을 위한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면서 “이번 선거가 그동안 쌓아온 종단 안정과 화합의 주추 위에 한국 불교의

중앙선거위는 “인천의 사표이자 수행자로 구성된 승단의 선거는 승풍을 진작하고 원용화합의 근간이 되어야한다”면서 “사회를 정화하고 향도할 수 있는 모범이 되기 바라는 것이 중도들의 발원”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문에서 중앙선거위는 비승가적 행위와 구태의 시행착오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선거 담당 종무원들의 엄정 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은 “중앙중회의원은 교구와 종단을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돼야 한다”면서 “원력과 공심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마자들의 자세도 바뀌고 있다. 영남지역 모 본사에서 출마할 예정인 A 스님은 “이전 선거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이라면서 “특히 금품을 전달하거나, 흑색선전을 할 경우 오히려 유권자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입후보부터 자격심사 철저”

12일 종무회의 결의

종무원도 ‘10·28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조계종 종무원은 지난 12일 종무회의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종단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입후보자 또는 당선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종무회의에서는 “승적과 호적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물론, 중한중법상 선거권·피선거권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심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종무회의의 이 같은 결의는 10·28

중앙중회의원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겠다는 종무원장 스님과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종무원장 스님은 공식석상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종단 사정(司正) 기관인 호법부도 지난 2일 부장 상운스님 명의의 공명선거 담화문을 발표했으며, 중앙중회 정책모임들도 모임을 갖고 “선거법에 준수하고, 최대한 공명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 또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정승가틀위헌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등 단



사명스님 입적 400주기 ‘추모’

10일까지 양일간 봉행됐다. 특히 10일 거행된 추모법회는 제534회 서산·사명·기허스님 등 삼대성사 추계행사를 겸한 행사로,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등 원로의원 스님들과 종무원장 자승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 밀양 표충사 주지 재경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을 비롯해 김두관 경남도지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 신도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차호 상보>

밀양=김형주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 합천 ‘평화의 집’ 방문

‘자비가 생명력’...원폭2세 손잡다

요양시설부지 마련 위한 땅 한평 사기 운동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9일 경남 합천군 ‘원폭2세 환우 쉼터 평화의 집’을 방문하고 원폭피해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평화의 집 윤여준 원장에게 금일 봉을 전달하고 “원폭 피해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평화의 집이 2011년도에 원폭피해자들의 재활과 지원을 위해 요양시설이 들어설 부지 마련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100평 동참’을 약속했다.

평화의 집이 전개하고 있는 땅 한 평 사기 운동의 동참금액은 평당 5만원으로, 총무원장 스님은 500만원의 기금을 보시하기로 한 것이다. 윤여준 평화의 집 원장과 평화의 집 운영위원장 해진스님은 “큰스님의 방문만으로도 큰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9일 경남 합천군 ‘원폭2세 환우 쉼터 평화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폭피해자들의 요양시설 부지 마련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곧바로 100평 동참을 약속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힘이 되었는데, 보시까지 해주어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윤여준 원장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엔 문을 열 예정인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의 건

립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국비 5억 원은 확보됐고, 경상남도에 5억 원의 예산을 (합천군이) 신청한 상태이다. 합천군은 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합천 평화의 집은 지난 3월1일 원폭 2세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조계종 총무

원 사회부장을 역임한 지원스님이 대표로 있는 위드아시아(WITH ASIA)의 첫 사업이기도 하다. 위드아시아는 국내의 빈곤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구호단체로, 평화의 집 실무는 지원스님 상좌인 해진스님이 맡고 있다. 지원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방문과 관심 표명에 대해 “불교방송은 프로그램(무명을 밝히고)을 통해 알려주고, 불교신문은 사실을 게재하는 관심을 보여주었다”면서 “(평화의 집) 소식을 들은 불자들이 총무원장 스님의 격려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많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평화의 집은 ‘자비가 곧 위대한 생명력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땅 한 평 1구좌당 5만원이면 동참할 수 있다. 농협 301-0063-8703-21(예금주: 아름다운운동)

합천=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인사추 구성·주지 임기보장”

화쟁위원회 ‘봉은사 문제 입장’ 정리
직영사찰 지정 등 종단발전안 제시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가 봉은사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도출했다. 화쟁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봉은사 측에 대해서는 종단의 직영사찰 지정과 인사권을 받아들이고 총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문제를 봉은사의 입장을 배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양측에 대해 상호 예의와 격식을 갖춰 중도 앞에 참회하고 화합할 것을 제시했다. 화쟁위는 향후 직영사찰 운영의 합리화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

안도 마련해 제시했다. 이 안의 핵심은 직영사찰 주지 임기 4년을 보장하는 것과 주지 임명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주지의 중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직영사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찰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매년 제정을 공개토록 했다.

직영사찰에 대해서는 종단의 목적 사업을 예산 편성이 가장 우선토록 반영해 직영사찰이 종단 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했다. 또 종무원

의 신분을 보장해 고용이 승계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지는 독자적인 인사기준에 따른 2년 주기 평가를 해 미달시 면직토록 했다.

봉은사에 대해서는 봉은사가 마련한 중장기 계획의 성과를 보완해 계속 추진토록 하고 강남지역 사찰 포교협의회를 구성해 주도적으로 운영토록 했으며 수도권 포교 연구소를 통해 수도권 불교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또 선종수사찰로서 역사성과 역경도량으로서 정체성을 살려가며 도심사찰의 모범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요구했다.

화쟁위원회 봉은사소위(위원장 지홍스님)는 12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2011 신춘문에 공모

11월15일~12월15일
www.ibulgyo.com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영사찰 제도 종합적 개선방안 및 봉은사 운영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도법스님, 지홍스님, 원택스님, 법안스님이 참석했다.

도법스님은 회견문에서 직영사찰 제도 종합적 개선 및 봉은사 운영과 문제해결 방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첫째 봉은사는 원로회의, 총무원, 중앙중회, 본사주지회의 등 종단 입장을 존중하여 이미 진행된 직영사찰 지정을 받아들이,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2면에 계속

승가복지 제도화 위한 공청회

3면

고운사 청소년센터 건립한다

4면



누가 추천하는 상조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대한불교조계종이 추천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무료상담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080-888-5000

850만 역전의 용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00% 출자 상조

경제적인 상조

서비스도 용품도 시중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불자님을 위한 상조-

재향군인회 상조회

중요정보 고시사항 1.종도회(원)금급 및 환급기준 가. 표준약관 제15조 제 규정에 의함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 만기3개월 후 해지시 납입금액의 100% 환급 2.소비자분쟁 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함 3.주요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의 환급 제도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 원사의 종류: 대마 100%(중국산) * 환급의 제도: 분별 및 제조시간: 수제(국내)내안동 나. 관의 재질: 두께 및 원산지 * 매장사: 오동나무(중국산) 3~4.5cm * 화장사: 오동나무(중국산) 1.8~3cm 다. 차림의 종류 - 윤구리무장-원(원)가운데(2006년 이상) - 장의버스: 현대, 기아(2006년 이상) * 추가비용: 상복별 기본 무료제공 이외 가리 추가시 10km당 윤구리버스16,000원 리무진 18,000원 *차림 및 비용은 제정지역 및 행사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도우미 추가시: 1인당 8만원(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임) 4.재향군인회 상조회 현황(2010년 3월 10일 기준) 가. 상조관리자선 19,965,615천원 총 고액 환급의무액 15,400,603천원(국민연금기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 - 회림회계법인) 5.고액납입금의 관리방법 고액납입금의 35.8%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